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3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음력 10월 19일 kwangju.co.kr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호남 민심회복 나선다

26~28일 광주 방문 선대위 혁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진행하는 '선대위 혁신'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부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 여성과 청년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이고, 20~30대 공동선대위원장 탄생도 점쳐지면서 '정치 신인' 발굴도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 핵심 인사들이 호남으로 내려와 '텃밭 민심'을 추스리고, 이재명 후보도 오는 26~28일 광주를 방문하면서 호남에서부터 대선 승리의 원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는 28일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 후보와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선대위 출범에 힘을 싣는다.

우원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 행보에 뛰어들었다. 우 위원장은 이틀 간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를 돌며 강연을 한다.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우 위원장은 '왜 이재명인가, 대선 승리의 길로 가자'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후보를 적극 알리는 동시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우선 이 후보에 대한 역량 검증 등 후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광주 민심이 당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부터 시작한다"고 광주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광주와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이라는 4개의 기둥이 기본 정체성"이라며 "민주와 평화라는 가치 중심의 기둥은 잘해왔으나, 민생과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생과 균형발전을 잘 할 후보"라고 말했다.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23일부터 2박3일 광주·전남 일정을 소화한다. 홍 위원장은 당원과 기초·광역의원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민주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후보의 지지와 정권재창출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의 광주·전남 방문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지지 당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당원 결속을 통한 호남 민심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정춘숙(경기 용인병) 의원도 지난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여성 핵심 당원 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이 후보도 부산·울산·경남(PK), 충청에 이어 오는 26~28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광주 방문에 맞춰 28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당 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광주시당 선대위 발대식을 연다.

광주시당 선대위는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 위주의 선대위에서 탈피, 20~30대 외부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 후보와 당 핵심 인사들의 호남 방문에 맞춰 조만간 선대위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현재 청년과 여성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남 산업 특성을 고려해 농업, 어업, 축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영입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20~30대 청년이 포진하고, 도의원 등은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후보와 당 핵심 국회의원들의 광주 방문에 맞춰 구체적인 선대위 인선을 확정하고, 이달 말께 선대위 발대식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장 임용 후보자 오늘 발표

지난 6년간 공석상태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전당장 임용후보자가 23일 발표된다. 지역에서는 애초 문화전당이 설립된 목적과 비전에 부합한 인사가 선임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화전당장(개방형 직위) 선임을 위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5명의 면접 절차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전당장 수장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임용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신원조회 등을 감안할 경우 최종 결과는 이르면 12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선임되는 전당장은 아시아문화 연구의 교류협력 체계 마련,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플랫폼 구축 외에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 연계 강화라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아시아문화원과의 일원화로 인한 조직 정비와 직원들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역량 강화문제도 시급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그동안 문화전당과 지역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선임되는 전당장은 지역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전당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과 능력,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적인 도덕성 외에도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트렌드에도 밝은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지난 6년간 전당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조직 안정을 토대로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사가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 유치원·초·중·고교가 전면 등교한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등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학교, 코로나19에 힘없이 뚫린다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학교 내 집단감염 속출

전남 16~21일 253명 확진 중 114명 학교 관련 감염

전남지역 일선 학교가 코로나19에 맥없이 뚫리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곳곳에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방역책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학교 내 집단감염의 경우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2면〉

"감기와 코로나 19 증세가 유사하니 증세 발현 시 등교를 중단시키고,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전남 방역당국의 거듭된 요구를 일선 학교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교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 동안 전남에서는 모두 253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 가운데 114명(45.05%)은 학교 관련 감염 사례다. 학생 70명, 가족 25명, 교직원 3명, 지인 등 기타 확진자 16명이다.

이 기간 전남에서는 모두 18개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포 1곳, 여수 4곳, 나주 1곳 등 6개교에서는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40명까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달 들어 학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과 이동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주민의 전남 방문 과정에서 지역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덩달아 학생 감염 사례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내 집단 감염의 경우 교육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 증세를 감기로 오인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방역당국 지침대로만 대처했더라면 교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후통, 기침, 오한 등 코로나 증세를 보였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등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을 에둘러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달 한글날 연휴 직후 지역 학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뒤 "감기와 코로나 증세가 유사하니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당시 공문에서 "한글날 연휴 뒤 일주일간 도내 5개교에서 38명의 확진자가 발생, 지역 내 추가 감염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타지역 방문 및 주민 접촉 후 유증상(기침, 인후통, 오한)이 있는데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등교하면서 교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다. 유증상시 등교 중지 후,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동일한 공문을 최근 교육청에 다시 보냈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첫 눈

오늘 1~3㎝ … 기온 '뚝'

23일 전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3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전남북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담양과 장성, 구례, 곡성 등 전남 북부지역에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을 60%, 예상 적설량은 1~3㎝로 예측했다. 이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동부권 에는 23일까지 5~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 아침보다 기온이 7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Trade-in 프로그램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